

교육용 SW 서비스 전면 개시

전북Graphics · 전북Writing · 전북Quiz 등 3종… 수업 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교육용 SW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업환경 개선으로 교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및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전북Graphics △전북Writing △전북Quiz 등 3종이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제작, 글

쓰기 첨삭, 퀴즈·보드 활동을 아우르며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과 글쓰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플랫폼 연동 보장, 중복 구독 보상 등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협업 드라이브 동시 제공 △동시 작업 인원 확대 등의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보내 모든 학생과 교원은 학교

계정을 발급받으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교육용 SW 지원 사업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태국 방콕 랑싯대학교와 JBNU 국제센터 중심으로 한국어학과와 공동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유학생 5천명 시대’ 글로벌 교두보 굳건히

전북대, 태국 송클라프린스대 · 랑싯대학 등과 교환학생 · 복수학위 협력 구제화 100여년 전통 공립 명문 고교 3곳과도 협력 강화… 글로벌캠퍼스 입학 협조키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태국 주요 대학 및 고등학교 손을 맞잡고 ‘유학생 5천명 시대’를 향한 글로벌 교두보를 굳건히 다졌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태국 남부 최고 명문대학인 송클라프린스대학교(Prince of Songkhla University)와 2026년 3월 학기 30명의 교환학생 파견·수용에 합의했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인문사회대와 공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방콕 랑싯대학교(Rangsit University)에서는 지난해 개소한 JBNU 국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학과와 공동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2026년 3월 학기 교환학생 20명을 선발하고, 2026년 6월부터 랑

싯대학내에 전북대 학부생 모집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나레수안대학교(Naresuan University)는 2026년 3월 학기 20명의 교환학생을 포함해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태국 남부를 대표하는 100여년 전통의 공립 명문 고등학교 3곳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벤 자마 추트 땃따니 고등학교(Benchama Rachuthit Pattani School)와 하타이송분군간야 고등학교(Hatyai Wittayalai Somboonkulanya School)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2~3학년 5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교하는 남원 글로벌캠퍼스 입학 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두 고등학교와는 추후 공식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 밖에도 마하와치라웃 고등학교(Mahavajiravudh Changwat Songkhla School)와는 신속한 MOU 체결에 합의하고, 향후 입학생 유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는 교환학생, 복수학위뿐만 아니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송클라프린스대, 랑싯대, 나레수안대 등 태국 명문 대학과 남부 대표 고교와의 협력은 전북대가 추진하는 유학생 5천명 시대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대가 아시아 유학생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 한옥마을 보존 해법 찾으러 베트남으로

전북대 글로벌학생연합팀, 여름방학 기간 호이안 찾아 정책 모델 발굴

전북대학교 글로벌학생연합팀이 전주 한옥마을의 보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여름방학 기간 베트남 호이안을 찾았다.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활용의 균형을 이룬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호이안을 직접 탐방하며, 전주 한옥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국제문제해결 창의프로젝트와 연계한 공모전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연구를 수행, 저탄소 축산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전주 한옥마을의 상업화 문제를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호이안에서 전통 보존과 관광산업의 조화를 직접 체험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학생들은 호이안의 전통가옥 보존 정책, UNESCO와 정부 간 협력 체계, 지역 주민 참여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축과 상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다양한 전통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고품층과 주민들



전북대학교 글로벌학생연합팀이 전주 한옥마을의 보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여름방학 기간 베트남 호이안을 찾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의 실질적 참여가 전통과 경제성을 동시에 지켜내는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요리교실, 바구니배 채취, 전통 공예 워크숍 등을 경험했다. 참여 학생은 “호이안에서는 전통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단지 보존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가 인상 깊었고, 전주

한옥마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제문제해결 창의프로젝트는 전북대 글로벌캠퍼스30 사업의 대표 교과목으로, 2025년 여름 계절학기에 인문대학 문경연 교수가 책임을 맡아 개설됐다. 2학기에도 사회과학대학 정규형 교수가 책임을 맡아 재개설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내년 전북 공립 유·초·특수 교사 125명 선발

전북교육청,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유·초·특수 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립학교 선발인원은 △유치원교사 60명(장애 4명 포함) △초등교사 58명(장애 5명 포함) △특수유치원교사 6명(장애 1명 포함) △특수초등교사 1명 등 총 125명(장애 10명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립 유치원교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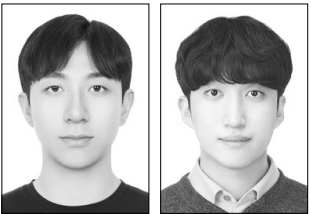
6명, 특수유치원교사는 4명이 늘어난 반면, 초등교사는 53명, 특수초등교사는 9명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52명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는 특수초등교사 1명을 제1차 시험에 한해 전북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2~26일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제1차 시험은 11월 8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임용시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응시자들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응시원서 접수 절차와 시험 일정,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올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 위영재·형재석 박사과정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나노융합공학과 대학원)가 지도하는 분자공학실험실의 위영재·형재석 박사과정생이 2025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생이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2년간 연구 장려금을 지원한다. 위영재 대학원생은 ‘자극 감응형 고차원 나노구조체 구현을 위한 상성이 온 분자 설계 및 합성’을, 형재석 대학원생은 ‘분자 단위 계면공학을 이용한 자기치유 및 신축성 고분열 예코나노복합재료 개발’을 주제로 각각 독립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과제에 선정된 위영재 대



학원생은 지금까지 총 19건의 SCI 논문을 발표했으며, 형재석 대학원생은 총 15건의 SCI 논문에 참여하는 등 연구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위영재·형재석 대학원생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보다 주도적으로 연구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산업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인력 교육기관 지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호남권 최초로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인력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급변하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에 발맞춰 전문성을 강화해 온 대학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게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정기 교육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승인 공식교육기관이다. 이에 전주비전대는 전문 강사, 시설·기자재 확보,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교육 운영은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가 전담한다. 해당 학과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최신 기술과 정비 교육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모빌리티 전문기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청렴 교육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전주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년 행동강령책임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갑질전담책임관(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학교 교(원)감) 8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가치 및 실천 의지 함양과 갑질 근절로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정책 특강 △전북교육 갑질 근절 정책 안내 △청렴 라이브 공연(청렴 팝페라) 등으로 운영됐다. 먼저 이호영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전북교육 갑질 근절 정책 4개 분야 및 갑질전담책임관의 역할인 갑질 예방 교육,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청렴연수원 김세진 원장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김 원장은 부패·청렴의 의미와 행복한 삶, 청렴의 핵심 가치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실무적인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줬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갑질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전북교육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신입교원 9명 임용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9월 1일자로 신입교원 9명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에 따르면 10일 대학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열린 신입교원 임용장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성희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신입교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임용된 신입교원은 △생명화학(간호학과)·최백범(수소에너지공학과)·고기연(응급구조학과)·박경란(특수교육과)·김상현(한의예과)·백운(경영학부) 교수와 △진천캠퍼스 윤세정(경영학과 일반대학원)·배지석



(상담심리학과)·신선경(RISE 사업단) 교수 등 총 9명이다. 박노준 총장은 “신입 교수님들께서 대학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각자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는 물론 대학의 미래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신입생 전공탐색 멘토링 자기주도 전공 선택 지원 강화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가 신입생 전공탐색 멘토링으로 자기주도 전공 선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시행된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전공탐색을 포함, 신입생 전공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명확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학기 프로그램에는 360여 명의 2~4학년 재학생 멘토가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전공탐색 △학업지원 △대학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진로·전공 탐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학과 주관 행사 및 학생자치기구 활동 참여, 동아리 관련 활동, 외부기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전대 RISE사업단 부안서 치유농업 특강

전주전대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특강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부안 지역의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질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최칠라 강사는 ‘치유농업의 현재와 미래’, ‘로컬 콘텐츠와 관광의 연결’을 주제로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부안형 치유농업 모델을 함께 구상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